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10월 15일(금)
...(음력 9월 10일)...
Пятница
15 октября 2021г.
№ 40 (11957)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러시아에서 10월 셋째 주 일요일을 아버지의 날로 제정.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올해10,800가구 삶 조건 개선 받아

사할린주 정부 회의에서 2021년 3분기 사업을 총결하면서 기록적인 규모의 주택이 완공되었다고 발표했다.

연초부터 사할린의 10,800가구가 생활 환경을 개선 받았다. 해당 가구는 낙후 주택에서 새 주택으로 입주한 사람,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집을 매입하거나 직접 건설한 사람, 사회임대계약을 체결한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다.

"올해 사할린주에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을 위한 50만m2 규모의 아파트 7,000세대를 완공할 예정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 공사 속도를 내느라 품질이 저하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입주자들이 입주 후 SNS를 통해 새 아파트에 하자 불만을 밝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알렉세이 콜레와티흐 사할린주 건설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연초부터 사할린과 쿠릴 주민 2,200명이 이미 낙후주택에서 신축 아파트로 이주했다. 새 주택들은 마카로브구역 위스토츠노예 마을, 네웰스크 구역 고르노사위드스크마을,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흄스크시, 포로나이스키시,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준공되었다. 낙후주택에서 새 아파트 이주 프로그램으로 연말까지 3,600명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다.

사할린 지역은 사회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 주택 건설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사할린주에 47개의 아파트(총 1935세대)를 지었다.

사할린주 정부 벨리크 총재, 쿠나쉬르 방문

사할린주 정부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가 유즈노쿠릴스크 지역을 방문해 낙후아파트 거주자들을 위한 새 주택 공사 현장을 찾았다. 아파트는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무료 제공된다.

2021년에는 유즈노쿠릴스크구역 107가구가 낙후주택에서 새 아파트로 이주했다. 쿠나쉬르 섬에서 주택 2채, 쉬코탄 섬에서 주택 1채가 준공되었고 현재 유즈노쿠릴스크, 골로브니노, 말로쿠릴스코예, 크라보자위드스코예 마을에 총 214세대의 아파트 11채가 건설 중이다.

알렉세이 벨리크는 골로브니노 마을의 한 교육기관의 공사 현장도 살펴보았다. 작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2023년 5월에 해당 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 건물은 60명의 학생과 40명의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학교-유치원이다. 현재 공사의 25%가 진행 중이다. 유즈노쿠릴스크에서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는 "물고기" 유치원을 방문해 현황을 알아보고 이후 구역문화회관에서 유즈노쿠릴스크 주민들과 만남을 가졌다.

사할린주, 코로나19 확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투쟁 연방작전본부에서 사할린주를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사할린 지역은 0.09%로 해당 지표에서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위험한 감염의 확산을 막는 것은 지방 정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작업은 위생 및 역학 요구사항 준수, 치료 프로세스 구성, 주민 백신접종 등 여러 방향으로 실시된다.

오늘날 백신접종은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주요 메커니즘이다. 현재 사할린 주민 55%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수백 명의 사할린 주민들이 매일 백신접종 현장을 찾아온다. 사할린 지역 외에도 알타이 공화국 0.17%, 칼미키아 공화국 및 마가단 주 0.18%로 COVID-19 발병률이 낮은 상위 3위권에 진입했다.

단신

러시아 부총리들, 사할린주 방문

러시아 연방 드미트리 그리고렌코 부총리와 마라트 후스놀린 부총리는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의 지시 이행 검토로 극동을 방문한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2021년 7월, 극동 연방관구를 방문한 이후 많은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부총리들은 하바롭스크 변경과 사할린주를 방문해 특히 사회 기반 시설을 중점적으로 둘러볼 예정이다. 이들은 쿠릴중앙구역병원을 찾아갈 계획이며 중요한 인프라 기반 시설들로 <야스니>어로가공종합체(이투루프 섬)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렌코 부총리는 기업인들과 만나 쿠릴열도 투자유치에 대해, 후스놀린 부총리는 동부 철도 인프라 개발에 관한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전해왔다.

무술대회로 한인문화센터 15주년 기념 행사 시작

오는 16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의 가을>무술대회가 펼쳐진다. 대회는 아무르주와 사할린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태권도, 당수도, 합기도 경기와 시범이 열린다. 행사에는 남인도 국제당수도연맹 총재가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무술축제는 <오스트로브>무술센터(관장 안수학) 주최,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 협력으로 개최한다. 주한인협회 측에 따르면 이 무술대회를 시작으로 사할린한인문화센터 15주년 행사들이 열린다. 10-11월 간 문화센터 15주년을 맞아 문화센터에는 <장인의 박람회>, <어머니의 비결>와 <왕만두>요리체험실, 씨름대회, 공연 등 기념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문화 자원봉사 포럼 열려

"문화 자원봉사자" 교육 포럼이 지난 13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작되었다. 3일간 열린 포럼에는 교육기관 대표, 문화주택, 도서관, 박물관, 지역별로 자원봉사 단체장 등 14개 자치단체에서 50명이 참석한다.

포럼 참가자들은 자신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 분야에서 필요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심의했다. 이 행사는 "문화"국가프로젝트, "창의적인 사람들" 연방 및 지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됐다고 주청년청에서 밝혔다.

새고려신문

2022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557루블리 0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알립니다

새고려신문 다음 호는 2021년 10월 29일에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사 편집부

Сообщаем, что следующий номер газеты выйдет 29 октября 2021 г.

모스크바, <소련 고려인. 사회주의 노력 영웅들>책 편찬 신 드미트리 저자와 인터뷰

일전에 모스크바에서 "소련 고려인. 사회주의 노력(노동) 영웅"이란 책이 출판되었다. 이 출판물의 저자는 CIS 한인포털 Arirang.ru 사이트 운영자인 신 드미트리이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새 저서에 대해 저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 우선 책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이 출판물은 몇 년 동안 자료 수집을 하고 어떻게 낸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자료 수집을 위해 여러 지역을 다녀오셨구요.

-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러시아어 버전이 모스크바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2019년 타슈켄트와 알마타에서 출판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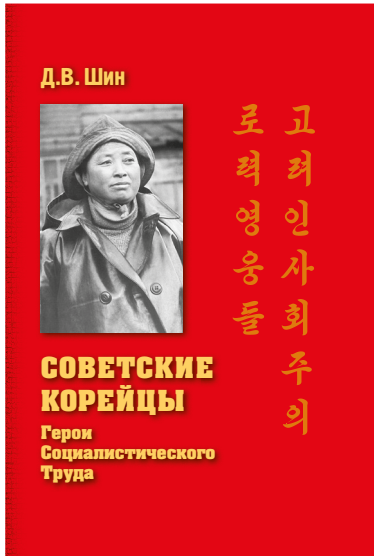
러시아 판의 표지에 유명한 사할린 어부이자 사회주의 노동 영웅 한 알렉산드라 스테파노브나 사진이 올랐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3년에 사할린을 방문했을 때 흙스크구역 문서보관소를 찾아갔는데 그곳 직원들이 한 슈라(슈라 - 알렉산드라의 애칭)에 관련된 문서를 꼼꼼히 보관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2016년에는 영웅들의 자녀와 손자가 여전히 살고 있는 타슈켄트 지역의 고

려인 집단농장들을 돌아다녔습니다.
- 사회주의 노력 영웅 중에서 보다 더 마음에 드는 분은 누구인가요?

- 책에 나오는 모든 인물의 운명은 소중하고 독특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소련에서 고려인의 노고를 구현한 인물들이었으며, 현재 고려인 명성에 크게 기여한 분들입니다. 이들의 위업은 독립국가연합(CIS) 고려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러시아)의 역사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이름은 중앙 언론들의 지면에 오르내렸고 소련 지도자들도 일부 고려인 영웅들을 직접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42년 가장 힘든 대조국전쟁 시기에 스탈린상 수상자인 김만삼은 세계적인 쌀 수확량기록(헥타르당 150센트네르(100kg에 해당)을 세웠습니다. 1960년대 "폴리트뉘젤(Politotdel)" 집단농장의 리 류보위작업 분조장은 소련에서 가장 큰 옥수수를 재배하여, 그 높이가 6 미터에 이르렀습니다. 1964-1972년 사회주의 노동 영웅 박 알렉세이 안드레예비치는 소련 지도자 흐루쇼브의 명령으로 소련의 가금류 산업의 창시자이자 책임자로 부임되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지금도 박씨를 깊은



존경과 감사로 기억합니다.

며 재배자인 박정일은 며 재배 과정을 기계화해서 1954-1964년에 그가 지도하는 조가 전국에서 가장 쌀을 생산했습니다. 그러한 예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친척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웅의 세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 책 출판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단체 또는 기관은 있나요?

- 책 작업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 언론인 및 소셜 네트워크 편집자가 영웅의 친척을 찾고 정보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신 드미트리 블라디미로위치
1977년 모스크바 출생.
2001년 러시아국립인문대학교 역사 기록학 대학 졸업.
2000-2005년 '고려인디아스포라', '아리랑', '아리랑프레스' 지의 기자, 편집국장, 제1부 편집장(부주필)등 역임.
2004년부터 CIS 고려인정보 포털 Arirang.ru 편집 및 운영.

저서
- 1941년-1945년 위대한 소련 조국전쟁 고려인들의 참전록, 2011년 (B.D. 박, V.V. 최 공저).
- 사진으로 본 러시아 고려인의 항일 독립운동 제3권, 서울-모스크바, 2019년 (V.V. 최 공동편집).
2013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발전 공로로 메달 수상
책 문의: 이메일: dmitryshin@mail.ru



죽 <고려 사람> 운영자 한 블라디슬라브, <고려 일보>의 편집자 김 콘스탄틴, 신 안드레이-세르게이 (ВКонтакте "CIS 고려인들" 그룹), 신 안드레이(OK(동창)사이트 "범민련" 그룹),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세가이(서) 안드레이(단체 "고려")에게 감사하고 책 출판에 도움을 주신 황 게오르기, 신 브로니스라브, 박 이완, 알렉산드르 손 러시아 정교회 사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책 출판 소감은?

- 먼 길을 걸어왔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매우 기쁘고 만족을 느낍니다. 지금 해야 하는 남은 일은 책을

기다리고 있는 영웅 친척들에게 책을 보내야 하고 도움을 준 분들에게도 책 나눠주는 것입니다.

- 앞으로 계획은 ?

- 2023년에는 카자흐스탄의 '고려일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의 언론 역사에서 위대한 사건입니다. 현재 김 콘스탄틴 고려일보 편집자와 창간기념일에 맞춰 책을 출판할 계획입니다. 선봉, 레닌의 기치, 고려일보에서 일했던 모든 직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저모

사할린 통계국, 연초 대비 식료품 가격 4.8% 상승

2021년 8월 대비 9월 사할린주 소비자 물가지수는 100.64%로, 2020년 12월에 비해서는 103.56%이다. 한 달간 식품 가격은 0.3%, 연초 대비 4.8% 인상되었다. 과일과 채소류 중에서는 오이와 토마토가 각각 20.5%, 9.1% 로 가장 많이 올랐다. 동시에 양배추 가격은 39.5%, 비트 20.8%, 감자 13.5%, 당근 6.8%, 양파는 6.3% 떨어졌다. 사과, 오렌지, 배, 레몬의 가격은 0.8-11.9% 인상되었다.

사할린 지역의 밀가루 가격은 평균 3.5%, 해바라기 기름은 1.3%, 과립당은 1% 올랐다. 보고된 다른 종류의 식품들 중에서는 자연산 생선 통조림 4.7%, 요구르트 4.3%, 과자류 3.9%, 완두콩과 콩 2.2%, 소시지 1.8%, 오트밀 및 진주 보리 1.6%, 저온 살균 우유 1.5%로 상승폭을 보였다. 비식품류 가격은 한 달 동안 1%, 연초부터는 2.8% 인상되었다.

9월에는 교육서비스 중, 고등전문교육기관 및 시교육기관의 교육비는 2.8% 인상되었으며, 미취학 아동 사교육비의 경우 2%, 자동차 운전 초기 교육과정은 0.2% 인상되었다.

소비자 물가 변화에 따라 최저 식품 세트 가격도 변했다. 이 세트에는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품 33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2021년 9월 말 사할린 지역의 월평균 최저 식품 세트 가격은 6,985.32루블리로 한 달 동안 3.1% 감소, 2020년 12월에 비해 11.1% 증가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세트 가격은 6728.15루블리, 코르사코브에는 6726.62루블리, 포로나이스크 7299.58루블리, 오하 8035.51루블리라고 사할린주통계국 홍보실이 전했다.

Сахалинстат: с начала года цены на продукты выросли на 4,8%

В сентябре 2021 год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вгустом 2021 года индекс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цен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авил 100,64%,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екабрем 2020 года — 103,56%.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е товары за месяц подорожали на 0,3%, с начала года цены на продукты выросли на 4,8%.

Среди плодовоовощной продукции наиболее заметно подорожали свежие огурцы и помидоры на 20,5% и 9,1%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месте с тем, по-прежнему, наблюдается сезонное снижение цен капусты белокочанной на 39,5%, свёклы столовой — на 20,8%, картофеля — на 13,5%, моркови — на 6,8%, лука репчатого — на 6,3%. Цены на яблоки, апельсины, груши, лимоны выросли на 0,8-11,9%.

Мука пшеничная подорожала в среднем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3,5%, масло подсолнечное — на 1,3%, сахар-песок — на 1%.

Среди других наблюдаемых видов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товаров стали дороже консервы рыбные натуральные — на 4,7%, йогурт — на 4,3%, кондитерские изделия — на 3,9%, горох и фасоль — на 2,2%, сосиски, сардельки — на 1,8%, крупы овсяная и перловая — на 1,6%, молоко питьевое пастеризованное — на 1,5%.

Не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е товары за месяц подорожали на 1%, с начала года — на 2,8%.

В сентябре среди услуг образования выросли цены на обучение: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высш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а 2,8%,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 на 2%, з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занятия для детей до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 на 1,5%, на начальных курсах обучения вождению легкового автомобиля — на 0,2%.

С изменением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цен изменилась и стоимость условного (минимального) набора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Набор включает 33 наименования наиболее часто потребляемых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Стоимость условного (минимального) набора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в расчете на месяц в среднем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конце сентября 2021 года составляла 6985,32 рубля, за месяц снижение на 3,1%, к декабрю 2020 г. — рост на 11,1%. Стоимость набо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6728,15 рубля, Корсакове — 6726,62 рубля, Поронайске — 7299,58 рубля, Охе — 8035,51 рубл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тата.

러시아, 매년 10월 셋째 주 일요일 아버지의 날로 지정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아버지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다. 10월 4일에 발표된 대통령의 명에 따라 앞으로 아버지의 날은 10월 셋째 주 일요일에 기념될 것이다.

"가족 제도를 강화하고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아버지의 날을 제정하여 10월 셋째 주 일요일에 기념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당 문서에서 밝혔다.

7월에 러시아 노동 및 사회 보호부는 아버지의 날을 기념

하는 것에 대한 공개 토론을 추진했다.

День отца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в России в третье воскресенье октября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ручил установить в стране День отца. Праздник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в третье воскресенье октября, следует из опубликованного 4 октября указа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В целях укрепления института семьи и повышения значимости отцовства в воспитании детей постановляю установить День отца и отмечать его в третье воскресенье октября", - говорится в документе.

В июле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России вынесло на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суждение идею отмечать День отца.

사할린 교사들, 지역연구 관련 현장 세미나에 참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생태센터 "로드니크"에서 사할린 주교육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추가교육 교사 및 교육자들을 위한 항토학에 관한 현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그랜트재단의 지원을 받은 기획 '숲 속 학교를 들여다 보아라'와 '지리정보 활용의 기술과 기술형성 방안'으로서의 교육탐구' 자질향상연수 일환으로 진행됐다.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이투루프를 포함한 9개 지역 16명의 교사들은 부세 석호 주변에 위치한 로드니크 생태센터의 캠프에서 현장 수업 방법을 연구했다.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일 종합 프로그램은 항토학과 관광에 대한 일련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교과서의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다.

현장수업은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교양활동의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교육자들은 모닥불 피울 때나 코스를 이동할 때 학생들과 어떤 게임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기타와 노래로 콘서트를 열어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날에는 교사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수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물 표본집 사진 및 항공 사진에 대한 수업, <지역연구장>, <지형조사> 프로젝트 등의 아이디어가 발표되었다. 세미나의 모든 현장 워크숍과 개발 자료는 프로젝트의 최종 수집본에 들어갈 것이라고 로드니크 홍보실은 전했다.

(8면에 계속)

10월 9일은 한글날

이중언어교육을 받고 있는 <말위나>유치원 유아들의 즐거운 발표회

한글날을 맞아 지난 8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말위나> 제36유치원에서 중급반 유아들의 공개 수업이 있었다. 공개 수업은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유치원 강당에 5-6세 아이들 약 40여명의 중급반 두 그룹이 모여, 한국 동요, 놀이, 율동 등을 통해 즐거운 한글날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들의 귀여운 모습과 발표는 필자에게 기쁨과 놀라움을 주었다.

보통 사할린에서 한민족 관련 유아들의 공연은 가장 유명한 <곰 세 마리>, <산토끼>, <울챙이> 등의 동요와 율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날 발표회는 예외였다.

아이들이 어려운 한글날 노래를 하고, 한국어로 숫자 10이상을 세고, 배영희 한국어 선생과 교원들, 음악 강사 등이 어울려 축제를 이어가면서 발표회는 매우 수준 높고 새로웠다.

이날 한 여아의 생일이어서 행사장에서 한국어로 축하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이 축하해주는 모습도 행사 분위기를 돋우었다. 40분간의 발표회가 끝나고, 배영희 한국어강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1년전 <말위나>유치원에서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그 당시 지도 부는 영어와 한국어를 이중언어로 택하고 한국어 선생을 찾고 있었다.

이 광고를 본 배영희 선생

은 유치원을 찾아 한국어강사로 취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공식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광고를 보고 유치원 찾아 왔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중언어프로그램이 잘 실시될지 많이 의심했어요. 겨우 5살(취직 당시 어떤 아이들은 4살이었음. - 기자주) 된 아이들이 두 언어를 잘 습득할지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다 보니 아이들이 잘 따라왔고 이 프로그램이 정말 효과가 있더라구요.»라고 배영희 선생이 말했다.

그는 중급반 두 그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중언어프로그램이라 모든 수업시간과 창작수업을 외국어로 진행한다. 하루는 한국어로, 또 하루는 영어로 - 번갈아 하다보니 한 과목을 일주일에 2-3번 하게 된다. 두 반을 담당하니 매일 수업이 있는 셈이다. 모든 행사, 수업을 미리 영어 선생과 계획하니 공동으로 하는 행사가 많다. 그리고 교원들과 함께 하는 것도 많다. 숫자로 반복하고 같은 주제로 말하고, 그림 그리고, 놀이 하고, 율동 배우고 - 외국어 익히기에 여러 교수법을 쓰고 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외국어 습득이 훨씬 빠르다.

반에는 한국어수업에 필요한 교육자료, 판, 스크린, 카드, 지도, 그림 등 여러 교구가 부러울 정도로 갖춰져 있다.



학부모들이 구입하는 것도 있고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이병일)에서 기증한 것도 많다. 교육원 측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작은 선물로 칭찬을 자주 해주면서 학업 분위기를 만든다.

처음 이중언어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반대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아이들에게 무리가 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할 것이라고들 했다. 그러나 유아들이 잘 받아들이고 재미있게 배우고 있으며 실력도 향상되



었다. 또한 부모들과 함께 하는 마스터클래스 등 행사들이 있어서 부모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그동안 진행한 행사로는 설날 행사, 최복이 만화로 공동 그림 그리기, 탈 만들기, 러시아 날 맞아 한러 국기를 응용해 부채 만들기, 그리고 제주도 굴 씨앗 심기 등이 있다.

<말위나>유치원 아이들은 제주도에 사는 또래 여자아이와 온라인 교제를 시작했다. 한국 분과 결혼한 러시아 여인의 딸인데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



로 알게 되었다. 러시아 여인은 딸에게 제대로 러시아어를 가르치기 위해 사할린 유아들과 소통하게 되었고 유치원 측에서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어를 배우는 데 활용했다. 영상 만남은 이미 했고 유치원에 인터넷을 설치했으니 앞으로 계속 이런 비대면 만남을 해나갈 것이라고 배 선생은 말했다.

아니와 출신의 배영희 한국어강사는 한국어교사와 강사 경험, 한인사회계 활동이 많은 분이다.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도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면 하는데, 가장 큰 걱정은 이 프로그램의 지원이 올 연말까지라는 것이다. 앞으로 시에서 이 지원을 계속 할지는 알 수 없다. 유치원 측에서는 이중언어프로그램의 효과를 잘 알고 있고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한인사회계에서도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울산시, 한-러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강화한다

내달 3~5일 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과학·교육·문화예술로 교류분야 확대
참가 자치단체 수 35개로 최대 규모

울산시가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일원에서 열리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통해 양국 지방정부 중심의 폭넓은 교류 협력 강화에 나선다.

12일 시에 따르면 2018년 경북 포항, 2019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어 올해 울산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한-러 30년, 극동을 세계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다.

한-러 수교 30년을 기념하는 한-러 상호교류의 해(2020~2021)를 맞아, 양국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교류를 경제뿐 아니라 과학·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전략이다.

이를 위해 포럼에 참가하는 자치단체 수를 최대로 확대한다.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는 국내 17개 시·도를 비롯해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및 북극지역 18개 지방정부 등 총 35개의 자치단체 관계자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두 번의 포럼과 비교했을 때 북극지역 7개 지방정부로 참석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한-러 지방협력포럼 중 가장 많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포럼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 정부 극동개발의 거점인 연해주, 러시아 조선·항공·기계산업의 중심인 하바롭스크, 수소경제로 발돋움을 계획 중인 사할린, 석유화학·농업·관광이 두루 발달한 아무르주 등이 참여해 조선·에너지·문화·관광 등 다방면에서

교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의 행사주제를 보다 다양하게 구성한다. 개회식과 한-러 지방정부 양자 회담 등의 주요행사를 비롯해 남·북·러 삼각협력을 위한 경제협력 세션, 북극항로·물류 세션, 문화예술 세션, 러시아현대미술전, 울산투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안전한 포럼 개최에도 만전을 기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방역 단계별 세부 행사 계획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특히 송철호 시장을 비롯한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포럼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성공적인 포럼 추진을 위해 울산시 관련 부서, 정부 기관,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시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통해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극항로 개설은 물론 울산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활용과 경제성 극대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송철호 시장은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양국 지방정부의 공동 번영 토대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울산제일일보)

월드옥타 신임 회장에 장영식
에이산그룹 회장

월드옥타 신임 회장으로 장영식(52) 에이산그룹 회장이 선출됐다.

월드옥타(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하용화)는 '제25차 세계한인 경제인대회' 3일차인 10월 14일 서울 그랜드워커히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장영식 회장을 2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선거는 상임이사들이 참여해 온·오프라인 투표로 진행됐다.

장영식 신임 회장은 당선소감으로 "'뉴부산 도약을 위한 옥타버스 운전기사 장영식'을 슬로건으로 발표한 공약을 이루기 위해 머리를 모으고 함께 하나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월드옥타 회장선거 공약으로 ▲회원청원게시판 설치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상임이사 혜택 확충 ▲회원 확충 및 상임이사 증원 ▲글로벌마케터 지원센터 설립 등을 내놴다.

장영식 회장은 1993년 25세 나이에 단돈 300만원을 쥐고 일본으로 건너간 한상, 이른바 '뉴커머'이다. 1995년 에이산 기계교역으로 시작해 현재는 면세점과 전동자전거 제조·판매업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면세점은 도쿄 아키하바라 본점을 시작으로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일본 전역에 있다.

에이산은 창업 14년 만에 소니(SONY) 등을 제치고 일본 가전제품 판매 1위를 차지했으며, 2010년엔 일본 방위성에 한국산 세탁기를 납품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 간 무역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동포사회에서 장영식 회장은 동경일한친선협회연합회 부회장, 동경한국학교 이사, 동경한국상공회의소 명예회장 등을 역임했다.

전 세계 64개국 138개 도시에 지회를 둔 월드옥타는 회원 7천여명과 차세대 2만3천여명이 함께하는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ая осень» откроет череду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енных 15-летию ККЦ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их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Сахалинская осень" пройдет 16 октября 2021 года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оревнования начнутся в 9 утра, в 13 часов состоится торжественная часть.

На фестивал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такие боевые искусства как хапкидо, тансудо и тхэквондо.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спортсмены из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спортсмен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четный гость турнира - президент Всемирной Федерации Тансудо господин НАМ ИН ДО, обладатель черного пояса 10 дан.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Как сообщили в РООСК, фестиваль «Сахалинская осень» откроет целую череду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енных 15-летию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 рамках этого события в течение октября-ноября запланированы мастер-классы «Секреты моей мамы», «Ван манту», Ярмарка мастеров,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а также концерты и торжеств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ш корр.)

Ким Ок Дя и её Пугачёво

На Сахалине трудится старейший на сети дорог начальник станции

Сахалин – это не только удивительная история и самобытная природа, но и люди – сильные и верные своему островному миру. Одна из них – начальник станции Пугачёво Ким Ок Дя, или на русский манер Наталья Ивановна Ким. В январе исполнилось ровно 50 лет с тех пор, как она начала работать в дежурной, а 44 года из этого полувека успешно руководит станцией.

Наталья Ивановна давно стала легендой Сахалина. Она старейший начальник станции на сети дорог. Год назад разменяв восьмой десяток, почётны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 Ким Ок Дя продолжает ходить в смены как дежурный, подавая пример молодым.

Ким Ок Дя – чистокровная кореянка. Хотя она прожила на Сахалине 71 год, речь всё равно выдаёт её иногородно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В первые минуты разговора сложно понять её быстрый, как река, поток слов. Постепенно, настраиваясь на волну и энергию этой невысокой и стремительной в движениях женщины, ловишь себя на мысли, что тебе доступен язык эльфов – именно так воспринимаются русские фразы в корейском исполнении. Второе удивление – это её безусловная, абсолютная любовь к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и к своей станции, к слову, лучшей на Сахалине.

Непростая история семьи Натальи Ивановны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привычна. В начале XX века после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южная часть острова отошла Японии. Родителей Ким Ок Дя привезли сюда из Южной Кореи в качестве бесплат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Посл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корейцы не смогли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Отец трудился шахтёром, мама воспитывала шестерых детей, Ким Ок Дя была второй по старшинству. Маленькой худенькой корейской девочке Наташе, как и её братьям и сёстрам, всё детство приходилось отовёвывать место под солнцем. Дома они говорили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за его пределами – на русском. Смешное произношение, необычная внешность и чёрные, как угольки, глаза выделяли её среди сверстников. Но сложности только закаляли характер. Для себя Ким Ок Дя решила: буду владеть устной и письменной русской речью не хуже других. Запоем читала русских классиков.

После школы Наташа решила выучиться на врача, но не прошла в мединститут по конкурсу. Вернувшись в родное Взморье и случайно увидела объявление –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нужны стрелочницы. «Начальник станции встретил меня хмуро. Недоверчиво посмотрел на щуплую фигуру и повёл показывать, как переводить стрелку, – вспоминает Наталья Ивановна. – Направление на медкомиссию он мне вручил со словами: надеюсь, врачи тебя забракуют. Мужчины вечно подтрунивали надо мной, когда я всем телом висела на стрелке, чтобы её сдвинуть, или чистила снег – его на Сахалине бывает много, по полметра и выше. Но я молча упиралась и делала своё дело».

Позже Наталья Ивановна несколько лет проработала на станции Цапко, а в начале 1977-го её



Фото с сайта Сахком

перевели начальником на Пугачёво. С тех пор эта станция для Ок Дя как родная. «Мы всегда жили в бараках. Когда я стала начальником, захотелось станцию сделать домом, чтобы всем здесь было хорошо», – говорит она.

Её дочь нет-нет да и упрекнёт в шутку: «Мама, ты железную дорогу любишь больше всего на свете». А она и не спорит, лишь улыбается и улетает мыслями в прошлое. И вспоминается ей, как 31 декабря 1978 года с грудным ребёнком на руках принимала станцию после капитально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как отчаянно спорила со строителями о недоделках. Как в 2009 году – и снова по иронии судьбы в Новый год – заступила на дежурство. Снег шёл не переставая, началась пурга. Снежной лавиной на перегоне Заозёрная – Пугачёво с пути выбило тепловоз и снегоочиститель. Все силы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ов были брошены на спасение людей и техники. То её дежурство растянулось на долгих четыре дня.

Небольшая станция Пугачёво, плотно окружённая сопками, и сегодня задаёт ритм жизни в одноимённом посёлке.

Когда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алась перешивка колеи с японского на общесетевой стандарт ширины, Ким Ок Дя предполагала: вот пустит первый поезд по обновлённому пути и уйдёт на пенсию. Ошиблась: поезд уже идет по колее 1520, а у неё желания и сил работать не убавилось. Слава богу, и здоровье не подводит.

Наталья Ивановна славится и своим гостеприимством. Это известно всем коллегам, кто останавливался на станции Пугачёво. Будь ты начальник дороги, ревизор, путеец или обычный пассажир, застрявший здесь из-за непогоды, начальник станции неизменно накормит своим фирменным пян-се – сочной паровой булочкой с капустно-мясной начинкой и пряными специями.

На вопрос, не тянет ли в Корею, Ким Ок Дя отвечает: «Два раза была у сестёр в Сеуле, но всегда хотела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на Сахалин, в Пугачёво. Тут вся моя жизнь».

Наталья Кузьмина

Газета Гудок (выпуск 17 от 03.02.21)

Издана книга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Геро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В России издана книга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Геро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Автором этого издания является Дмитрий Шин —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портала корейцев СНГ Arirang.ru. О новом издании с автором побеседовала наш корреспондент Виктория Бя.

— Дмитрий, поздравляю с выходом в свет Вашей новой книги. Знаю, работа над ней продолжалась несколько лет. Вы посетили различные регионы. Можно об этом подробнее?

—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за поздравления. Сейчас в Москве вышел последний, российский тираж издания. Первые книги вышли в 2019 г. в Ташкенте и Алма-Ате. Хотелось особо отметить, что на обложке российского издания изображена знаменитая сахалинская рыбачка, Гер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Александра Степановна Хан, которая работала бригадиром рыболовецкой бригады в г. Холмске и которую на Сахалине

помнят и до сих пор гордятся ее успехами. В 2013 г. мне удалось побывать в Холмском архиве, сотрудники которого бережно хранят документы, связанные с Шурой Хан. А в 2016 г. состоялась поездка в корейские холмозы Ташкентской области, где до сих пор проживают дети и внуки Героев.

— Кто из Героев Соцтруда Вам наиболее импонирует?

Судьба каждого героя книги, во всех значениях этого слова, уникальна. В свое время именно эти люди стали олицетворе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трудолюбия в СССР и сделали основной вклад в ту репутацию, которую корейцы сейчас имеют на всем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Их высокие достижения вписаны в историю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цев СНГ, н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 историю нашей страны. В свое время их имена не сходили со страниц центральной прессы, а некоторых из них наши руководител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знали лично. Лауреат Сталинской премии Ким Ман Сам в самое тяжелое военное время, в 1942 г., установил всемирный рекорд по сбору урожая риса (150 центнеров с 1 га); бригадир колхоза «Политотдел» Любовь Ли в 1960-е гг. выращивала самую высокую в СССР кукурузу, ее размеры достигали в высоту шести метров; Гер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Алексей Андреевич Пак в 1964-1972 гг. был основателем и руководителем Птицепрома СССР, куда он был назначен по личному распоряжению Хрущева и коллеги которого до сих пор вспоминают Пака с глубоким уважением и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ю; рисовод Пак Чен Ир сумел настолько механизировать процесс рисоводства, что его звено в 1954-1964 гг. давало самый дешевый рис в стране. Таких примеров много, и поколение Героев, безусловно, достойно того, чтобы о них помнили не только родственники.

— Кто и ка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Вам помогли?

—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ен всем, кто помогал в работе над книгой.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информации и поиске родственников Героев оказали коллеги-журналисты и редакторы соцсетей: Владислав Хан («Корё сарам: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Константин Ким («Корё ильбо»), Андрей-Сергей Ким (группа «Корейцы СНГ» Вконтакте), Андрей Шин (группа «Бомминрен» в ОК), к большому сожалению недавно ушедший от нас Андрей Шегай (сообщество «Корё»). Отдельные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хочется сказать тем людям,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ым книга вышла в свет: Григорию Мангымовичу Хвану, Брониславу Сергеевичу Шину, Ивану Тимофеевичу Паку, отцу Александру Сону — руководителю Славя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ославного Общества.

— Ваши чувства после издания книги?

— Признаться, это облегчение от того, что большой путь пройден, и результатами этого пути я очень доволен. Многие родственники Героев книгу ждут, поэтому сейчас предстоит отдельная работа по ее рассылке родственникам и тем, кто мне помогал, и отдельная — п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книги.

— Над чем работаете, какие проекты впереди?

— Через 2 года, в 2023 г., газета «Корё ильбо» в Казахстане будет отмечать свой 100-летний юбилей. Это большое событие в жизни журналистики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Совместно с редакцией газеты мы сейчас работаем над книгой, которая будет выходить к юбилею газеты, собираем биографии всех сотрудников «Авангарда», «Ленин кичи» и «Корё ильбо» за все время существования газеты.

— Желаем успехов в Ваших начинаниях.

Шин Дмитр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Родился в 1977 г. в г. Москва.

В 2001 г. окончил Историко-архивный институт РГГУ.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подготовке изданий .Москва: Грани век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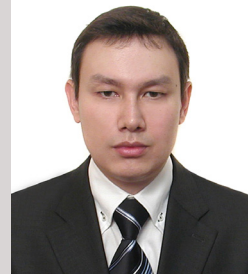
М., 2001, энциклопедии для школьников .Россия: XVII–XIX века., .Россия: XX век. (издательство .ОЛМА-ПРЕСС.). Автор книги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М., ИВ РАН, 2011 (в соавторстве с Б.Д. Паком и В.В. Цоем). Составитель издания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 борьб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Фотопортреты. Кн. 3. Сеул-Москва, 2019 (совместно с В.В. Цоем).

В 2000–2005 гг. работал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м, ответственным секретарём, первым заместителем главного редактора газет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Ариран., .Ариран-Пресс..

С 2004 г. —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портала корейцев СНГ Arirang.ru.

Награждён медалью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2013).

✉-По вопросам приобретения книги обращаться к автору: dmitryshin@mail.ru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е полугодие — **557 руб. 0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Кандидатом в президенты РК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избран Ли Чжэ Мён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56-летний адвокат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Ли Чжэ Мён назван кандидатом в президенты страны от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Как было объявлено 10 октября, он набрал 50,29% голосов участников 11-ти туров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выборов.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бывший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Ли Нак Ён, который набрал 39,14% голосов. Бывший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Чху Ми Э набрала 9,01%, а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ак Ён Чжин - 1,55% голосов участников выборов. В речи, с которой Ли Чжэ Мён выступил после подведения итогов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выборов, он обещал в случае избрания президентом провести реформу в сфере недвижимости и приложить усилия для искоренения коррупции. По его словам, предстоящие выборы должны определить, «вернёмся ли мы в тёмное прошлое или будем жить в стране новой надежды». Ли Чжэ Мён обещал также проводить политику,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возрождение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осударства, достичь всеобщего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инвестиции в науку, технологии и образование. Он обещал создать общество, «в котором каждый сможет пользоваться справедлив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независимо от политических взглядов или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после объявления результатов Ли Нак Ён заявил, что будет обжаловать результаты выборов. Дело в том, что почти 200 тыс. голосов, поданных в поддержку Чон Сэ Гюна и Ким Ду Гвана, выбывших из списка кандидатов в ходе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выборов, не были засчитаны при подведении итогов. Если их учесть, то результат Ли Чжэ Мёна составит 48,38%, то есть, менее 50%. В этом случае потребуются второй тур выборов.

В РК создаётся комитет по переходу к «жизни с COVID-19»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РК будет создан комитет с участ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независимых экспертов, который разработает стратегию перехода к «жизни с COVID-19». Как сообщил 10 октябр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его первое заседание состоится в конце этой недели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Ким Бу Гёма.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ся вопросы деятельности сфер экономики, образова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а также ослабления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мерено разработать план действий по постепенному возвращению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к нормальной жизни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COVID-19, начиная с 9 ноября. Ра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ообщало, что для возвращения к нормальной жизни не менее 70%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должны пройти полную вакцинацию.

Лидер КНДР призвал улучшить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народа страны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призвал руководителей на всех уровнях «служить людям как богу», улучшая условия их жизни. Как сообщило 11 октября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данный призыв прозвучал накануне в выступлении Ким Чен Ына по случаю 76-й годовщины основания правящей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артия по-прежнему полна решимости эффективно продвигать пятилетний план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зложенный на партийном съезде в январе, призвав решить проблемы с продуктами питания и жильём. Ким Чен Ын не упомянул об отношениях КНДР с РК и США. Он впервые с момента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в конце 2011 года выступил с речью по случаю годовщины основания партии. 10 октябр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тметила 76-ю годовщину основания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без военного парада или какой-либо другой демонстрации силы. В газетах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несколько статей о преданност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и лидера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а стране и народу. Центральна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Нодон синмун» призвала народ мобилизоваться в поддержку Ким Чен Ына, рассказав о его усилиях,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ены на то, чтобы помочь людям справиться с экономическими проблемами.

11,4 млн человек подали заявки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эшбэк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9 октября, 11 млн 430 тыс. южнокорейцев-пользователей кредитных и дебетовых карт подали заявки на получение кэшбэка, финансируемого государством. В этой связ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напомнили, что с 1 октября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 девять компаний-операторов банковских карт. Кэшбэк составит до 100 тыс. вон (85 долларов) в месяц, если в октябре и ноябре среднемесячные расходы на 3% превысят аналогичный показатель второго квартал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лагают, что на возврат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могут претендовать не менее 99% подавших заявки. Возврат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карт для оплаты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в ресторанах, гостиница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офлайн-магазинах, принадлежащих частным лицам. Расходы в крупных дисконтных магазинах, универмагах,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ах,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заведениях и при покупке предметов роскоши не учитываются при возврате денег.

(RKI)

Сеул становится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ым мегаполисом

Сеул, 11 ок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Сеуле становится местом притяжения все большего числа тех, кто пытается обосноваться в городе, в том числе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в продлении виз, подписании жилищных контрактов или открытии банковских счетов.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рудно обосноваться в стране, когда ты не знаком с ее языком или культурой. Иностранцы обращаются к нам за помощью, поскольку они понятия не имеют, как получить жилье через Zigbang (популярное приложение для поиска квартир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потому что они не знакомы с системой аренды жилья в Южной Корее», - сказала в интервью газете Korea Times Сук-джа Ли-Фишер, основатель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иммиграции (KCI).

«К сожалению, есть некоторые случаи, когда им приходилось плат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комиссию или их обманом заставляли вносить более высокий депозит. Команда KCI может сопровождать их и помогать им в общении».

Центр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ляет место встречи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так как Ли часто проводит занятия, где они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в различных упражнениях, таких как вязание, рисование или каллиграфия.

«Время от времени я открываю разовые занятия. В прошлый раз мы вязали сумки. И если погода хорошая,

мы встречаемся небольшими группами и выходим вместе на короткие пикники», — сказала Ли.

Корни KCI уходят в 2015 год, когда Ли впервые организовала группу людей, в основном своих друзей, которые хотели помочь жителям с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ством. Будучи медсестрой, отправленной в Германию в 1972 году, Ли сказала, что сама испытала, как трудно жить на чужбине.

«Требуется много времени, чтобы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и обосноваться в другой стране, особенно с учетом языковых и культурных барьеров. Я хочу помочь иностранным жителям, которые могут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отчаявшимися и одинокими, как я когда-то», — сказала она.

Тем временем она надеется открыть филиалы в других провинциях, если почувствует,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больше поддержки для большего числа людей по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вопросам. Она уже получила много звонков от тех, кто живет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Южная Корея становится гораздо более разнообразной с точки зрения людей из разных культур, но иногда мы слышим истории о наших членах и их детях, страдающих от предрассудков и дискриминации. Я надеюсь, что KCI сможет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к этим вопросам и сыграть свою роль в изменении общества, чтобы ценить и принимать разнообразие», — сказала Ли.

Процедура таможенного и паспортного контроля сокращена в разы

Сеул, 10 ок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Более 15 500 иностранцев из стран с безвизовым режимом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новой системой электрон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на въезд в Южную Корею в первый месяц ее внедрения,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дан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в сентябре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5 811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подали заявки на получение электрон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на поездки в Корею (К-ЕТА), и 15 556 из них были удовлетворены.

К-ЕТ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онлайн-электронное разрешение на поездку, которое иностранные граждане из безвизовых стран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еред въездом в Южную Корею в целях туризма, посещения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ли бизнеса. Они обязаны предоставлять личную и иную информацию через веб-сайт или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вело систему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для 49 стран, из 112, с которыми у него есть соглашения об отмене виз. Число стран, имеющих право на участие, может измени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их ситуации с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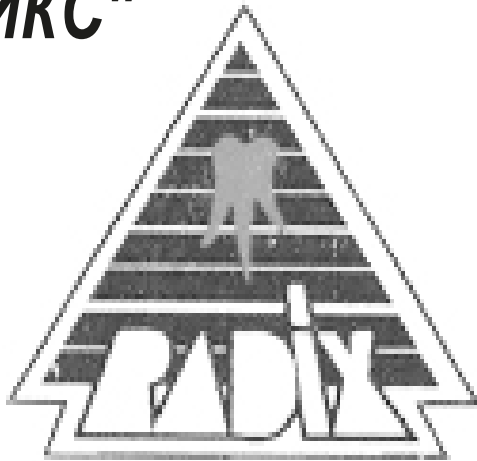
Большинство таких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составляли граждане США, их оказалось 10 710 человек или 68 процентов, за ними следовали 981 человек из Франции, 952 человека из Германии, 666 человек из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и 307 человек из Нидерландов.

Число бизнесменов, подавших заявки на получение К-ЕТА, составило 525 человек.

Пассажиры с К-ЕТА освобождаются о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едставлять карту прибытия и могут ускорить процедуру таможенного и паспортного контроля, используя эксклюзивную зону досмотра в аэропорту.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10800 сем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лучшили свои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в 2021 году

О рекордном объеме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было доложено на совещании губернатора с член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де подвели итоги работы за три квартала 2021 года.

По ли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свои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улучшили 10800 островных семей. Это не только переселенцы из аварийных домов, но и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и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приобрели или построили собственное, заключили договоры социального найма.

– В этом году мы должны сдать самый большой объем жилья за всю истор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5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 это 7 тысяч квартир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Недопустимо гнаться за цифрами в ущерб качеству. Иногда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новоселы жалуются мне на свои новые квартиры. Чтобы такого не происходило, необходим народный контроль,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которые участвуют в областной программе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проводят предварительную приемку новостроек. Два раза в месяц организовываются встречи жителей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инстроя, райо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компании-застройщика. Вместе они осматривают квартиры и высказывают замечания по качеству отделочных работ. К следующей встрече подрядчик обязан их устранить. При этом на каждое жилое помещение действует гарантийный срок 5 лет.

Как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с начала года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 комфортные квартиры уже переехали 2200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Новые дома сдали в Восточном Макаровском района, Горнозаводске – Невельского,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Холмске, Поронайс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о конца года новоселье отметят еще 3600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непригодного для проживания фон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тся программ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е только социального, но и коммерческого жилья. С января по сентябрь на островах возвели 47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 это 1935 квартир.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иксируется наименьший в России прирост случаев COVID-19

Федеральный оперштаб по борьбе с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ей сообщил данные по регионам с наименьшими темпами прироста новых случаев за сутк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этот список под первым номером с показателем 0,09%.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особо опасной инфекции – одна из ключевых задач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абота по снижению темпов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ведется по несколь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облюдение санитарн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их требований, организация ле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а также иммунизация жителей.

– Сдерживать рост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удается за счет разумного баланса ограничи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профилактики. Там, где есть высокий риск заражения, должны быть приняты все меры по защите граждан – социальная дистанция, масочный режим, переход на дистант. В комплексе с вакцинацией это позволяет создать прочный щит перед опасным заболеванием,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Вакцинация на сегодня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ым механизмом по сдерживан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екции. Показатель 55% от плана иммунизации говорит не только о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организации прививочной кампании, но и ответственном отношении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к своему здоровью и здоровью окружающих.

Ежедневно на пункты вакцинации обращаются сотни островитян. Каждый из них вносит свой вклад в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ллективного иммунитета на островах. Кром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тройку лидеров с низкими темпами прироста новых случаев COVID-19 также вошли Республика Алтай – 0,17%, Республика Калмыкия и Магаданская область – 0,18%.

Отметим, благоприятная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ая обстановк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зволила снять часть ограничений для привитых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Так,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ложено увеличить норму по заполняемости залов. При проведении мероприятий в закрытых помещениях теперь возможно занимать 70 процентов от вместимости помещений. Ранее действовало ограничение до 50 процентов.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развивают новые форматы социальной торговл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рошла масштабная ярмарка с ценами от производителя

Двухдневную ярмарку «Золотая осень Сахалина» провели на площадке у Дома торговли. В этом году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здесь представили более 160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з 9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Ярмарка,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совместно с генеральным партнером АО «Россельхозбанк», прошла под лозунгом #СвоёРодноеОстровное. Организации также поучаствовали в тематических конкурсах и провели различ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 Осенняя ярмарка всегда окружена атмосферой праздника и хорошего настроения.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за-

пастьсь свежей и качественной местной продукцией по приемлемым ценам. Тем более, что наши сельхоз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и смогли получить достойный урожай. А значит, мы сможем обеспечить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собственным продовольствием на долгие месяцы вперед,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области считает одним из важных вопросов доступность цен на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Для этого власти развивают торговую сеть эконом-формата. Сейчас товароборот в ней достиг 25 процентов от общего объема продаж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Проводятся ярмарки, расширяется фирменная сеть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организуется мобильная торговля.

Участниками нынешней ярмарки стали крестьянские и личные подсобные хозяйства, садоводы, огородники, предприятия пищевой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а также компани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Они представили широкий ассортимент товаров: картофеля, овощей, мясных и молочных изделий,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хлебобулочной, кондитерской продукции, кулинарии. Торговая наценка – минимальная. К примеру, килограмм картофеля можно было купить за 30-35 рублей. Для сравнения даже в фирменных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вне ярмарки цена на клубни начинается от 42 рублей.

– Ходить на осеннюю ярмарку для меня – многолетняя привычка и больш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Здесь увидишься со знакомыми, обсудишь последние новости, ну и, конечно, купишь нужные товары по нормальной цене. Вот, приобрела лук и мед, а еще мяса и картошки – пойду домой жарить,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иктория Новолашина.

Традиционно на ярмарке сахалинцы активно покупали рассаду овощных культур, семена картофеля высоких репродукций лучших и традиционных сортов, саженцы ягодных кустарников и плодовых деревьев, а также сопутствующие товары – минеральные и органическими удобрения, садовый инвентарь.

Област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подготовило гостям праздника богатую культу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которая радовала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два дня: выступления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конкурсы и розыгрыши от партнёров, а также кулинар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от ведущих шеф-поваров.

Например, Совхоз «Тепличный» провел нынешнюю ярмарку в оранжевом цвете,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символом Оранско-Нассауской династии, правящей в Нидерландах. Развлечения был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мастер-класс по рисованию тюльпанов, викторина на знание Голландии, лекция про творчество Ван Гога, выступление творческого коллектива с голландским танцем и обучение ему желающих. Гостей угощали гороховым супом и пирогами с картофелем фри.

Глава ведомства Инна Павленко вручил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а муницип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яам и творческим коллективам, дипломы победителям по 11 специальным номинациям среди островных сельхоз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а также наградила лучших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а «Красота родного края».

В зоне фуд-корта горожане смогли попробовать блюда, приготовленные островными поварами из продуктов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свежих овощей, мяса и рыбы.

«Зеленая» инициатив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иведет к ежегодной экономии для области в 700 млн рублей и улучшит экологию островов

Такой эффект даст модернизация энергосистемы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Вместо угля и дизеля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малотоннажный сжиженный природный газ и возобновляемые источники энергии.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 Итуруп в 2023 году должна появиться система приема, хранения и регазификации СПГ. Аналогичный проект планируется реализовать и на Кунашире.

О том, как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мерен прийти к балансу выбросов и поглощений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нее рассказал на совещани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 член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провели инвентаризацию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на всех ключев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Выбросы составили 12,3 млн тонн CO₂-экв. Поглощение – 11,1 млн тонн CO₂-экв.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азница между выбросами и поглощениями составила 1,2 млн тонн CO₂-экв. Это и есть тот объем, который требуется сократить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 Подъемная ли это цифра? Мы считаем, что да.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с угля на газ переведут 145 островных котельных. Доля автомобилей, работающих на газомоторном топливе и электричестве, должна вырасти до 30 процентов. Бензиновый и дизельный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будет постепенно заменяться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й. Следующая цель – увеличение доли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ов энергии в выработке электричества до 15 процентов. Мы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с компанией «НоваВинд»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ветропарка мощностью 200 МВт,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Крупные нефтегазовые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ов «Сахалин-1» и «Сахалин-2», установили корпоративные цели по повышению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ости свое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что ведет к снижению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Аналогичный процесс происходит и в угледобываю-

щей отрасли. «Восточная горнорудная компания» в этом году запускает самый протяженный в России 23-километровый закрытый магистральный угольный конвейер. Это избавит Углегорский район от угольной пыли.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работают на привлечение инвесторов в реализацию клима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Совместно с Росатомом и французской компанией «Эр Ликид» прорабатыв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одорода на экспорт.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с Газпромом о выделении метана в качестве ресурсной базы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30 тысяч тонн водорода в год.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ложил опробовать на Сахалине механизмы «зеле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а островах уже действуют региональные налоговые льготы в области энергетики и чист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апример,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уплаты налога на имущество, используемого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электрической или тепловой энергии. Для владельцев газомотор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и электрокаров транспортный налог снижен в два раз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вивает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о вопросам углерод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Актив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идет с япон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Евросоюзом и Всемирным Банком. Прорабатывается вопрос признания углеродных единиц, обращающихся в Росс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Губернатор обратился к Президенту за поддержкой инициативы по принятию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роведении эксперимента по установлению специаль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ыбросов и поглощения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в отдельных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н официально внесен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Это значит, что документ поддержан всеми министерствами и ведомствами и готовится к внесению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Думу.

Картой сахалинца пользуются около 45 тысяч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Принято более 65 тысяч заявлений на выдачу карт. И для взрослых, и для детей она дает массу бонусов – скидки на товары и услуги, льготный проезд в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возможность использовать в качестве документов и пропусков. Проект запущен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объединяет все соци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культурные и спортивные активности. Мы расширяем проект, чтобы людям было удобнее получать новые скидки и услуги. Мы изучили лучшие российские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актики, переняли самые эффективны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решения.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 это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долгосрочный проект, призванный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островитян, дать им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социальную защиту.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этот инструмент абсолютно бесплатен,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рта позволяет получать скидки в магазинах и на ряд бытовых услуг, служит аналогом отдельным документам при обращении в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работает в качестве пропуска для школьников.

–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ежедневно приобретает новых сторонников. Это инструмент социального сервиса,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финансовые и другие функции для удобства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Преимущества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карты особо отмечают люд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программы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старше 70 лет по карте действует бесплатный проезд в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А жители в возрасте от 55 лет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посещать культурные и спор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ейчас свои услуги участникам проект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более 60 учреждений. Пенсионеры чаще всего посещают Чехов-центр,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кинотеатры. Среди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наибольше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льзуются «Горный воздух», волейбольный клуб, бассейн, тренажерные залы.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лена Ефимова недавно оформила карту сахалинца и активно пользуется ее возможностями.

– По карте можно бесплатно ходить в бассейн, мне это очень нравится. Сегодня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снова посетила. Карта работает и в зоопарке. В Невельске мы тоже по ней были на экскурсии в музей. В ноябре собираюсь в филармонию на концерт сходить. Замечательно, что сделали такую льготу пенсионерам. Наша жизнь стала гораздо интереснее и активнее, – поделилась Елена Ефимова.

Карта открывае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не только пенсионерам, но и молодежи и всем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К примеру, в преддверии горнолыжного сезона к проекту подключились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лять скидку на свои услуги по прокату, продаже спортив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и снаряжения, а также по обучению зимним видам спорта. Новые партнеры присоединяются также и в районах, в основном это торгово-сервис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Сегодня в проекте участвуют и предоставляют скидки на свои услуги уже более 500 компаний различных сфер.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едется системная работа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новых партнер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давать обладателям карт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кидки и возможности. Чем больше жителей будет присоединяться к проекту, тем больший он интерес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ять для компаний, а значит, количество бонусов для пользователей карты продолжит раст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림대성심병원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안산 사할린동포 금연지원 캠페인 펼쳐

- 의료서비스 접근 힘든 입주민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는 지난 5~6일 경기도 안산시 사할린동포 고향마을 아파트에서 흡연 형평성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캠페인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LH국민임대아파트 고잔1관리소와 고향마을 영주귀국자노인회 지원과 코로나19 방역준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됐다.

안산 고잔1관리소 사할린동포 고향마을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 징용돼 70여년 만에 영주귀국한 한인 동포들이 정착한 곳으로 언어장벽이 곧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졌다.

영주귀국자노인회에서는 입주민과 러시아어 통역, 안산고잔1관리소와 고향마을복지관에서는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주민들의 건강실천 및 금연환경 조성에 복지관의 적극적인 지원 협력을 약속했다.

백유진 센터장은 "사할린동포 입주민에게 금연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금연환경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에서는 금연캠페인을 통해 금연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금연 인식을 개선하고 '담배없는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예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 20년 이상 흡연력,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자, 흡연 관련 질병이 있는 중증고도흡연자는 4박 5일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일보)



한림대성심병원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직원들이 사할린 동포들을 대상으로 금연지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인천시설공단 송도도시기반사업단, 지역사회 취약시설 재능기부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송도도시기반사업단은 13일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방문하여 재능기부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봉사활동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사회 취약시설에 공단이 보유한 작업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도움을 주고자 이루어졌다.

공단 직원들이 직접 △회관 내 에어컨 필터 세척 및 재설치 △방역기를 활용한 건물 내·외부 소독작업 △옥외 보안등 점검 및 소모품을 교체하며 작업 기술이 필요한 곳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작업으로 땀을 흘리던 공단 직원은 "업무로 바쁜 나날이지만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금도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웃었다.

김영분 이사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돌아보고 지역주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한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서울뉴스통신】



지역사회 취약시설 재능기부 활동모습

'제3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수상작 온라인 전시

43개국 동포 어린이 446명 참가, 한국어 배우는 과정서 겪은 일화 · 느낌을 그림일기로 표현수상작 14편 온라인(<https://ikefkids.kr>) 전시회 통해 공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재단법인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 임영담)이 주최하는 '제3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수상작이 10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전시되고 있다.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는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은 일화나 느낌을 그림일기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키우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부모세대와의 교감·소통을 확대하고자 개최돼 왔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올해 대회는 7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됐으며, 전 세계 43개국 재외동포 어린이가 446명이 참가했고 이 중에서 1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오윤우 어린이(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2학년)는 마음처럼 또박또박 써지지 않는 글자를 '공책의 네모 칸 안에 얹전히 들어가 있지 않고 자주 탈출을 시도하는 지렁이, 달팽이'에 비유하는 등 한글을 쓰면서 겪은 어려움을 재밌게 표현했다.

이 외에도 한글을 잘 기억하기 위해 물건 또는 동물로 한글을 만들어 공부했던 경험, 외국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자신이 세종대왕이 된 듯한 뿌듯함을 느꼈다는 사연 등 한국어



'제3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수상작이 전시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화면 캡처

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은 일화를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 온라인 전시회는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누리집(<https://ikefkids.kr>)'을 통해 진행 중이다. 전시회에서는 수상작과 더불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수상자 축하 메시지와 수상자 인터뷰 영상도 만나볼 수 있으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 음식에 담긴 역사적 유래를 흥미롭게 소개하는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 영상도 제공된다.

(재외동포신문)

[우리말로 깨닫다]

한글과 삼강오륜

삼강오륜(三綱五倫)은 예전부터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이릅니다. 삼강은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으로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부부 간의 도리를 의미합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지만 시대에 따라 충성이나 효도, 절개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한글과 삼강오륜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세종이 삼강행실도라는 책을 펴냈음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은 왜 삼강행실도를 펴냈을까요? 세종 당시에 진주에 사는 김화라는 사람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세종은 인간의 윤리를 도탑게 하고자 삼강행실도를 편찬하는 겁니다. 삼강행실도는 충신, 효자, 열녀의 이야기 즉, 삼강행실의 이야기에 그림을 그린 책입니다. 우매한 백성이 글을 읽지 못하여 깨닫지 못할까 하여 그림을 붙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저는 삼강행실도의 편찬과정을 보면서 한글의 창제와도 닮은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삼강행실도는 한자로 되어 있는 책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었기에 그림을 붙인 것이고, 훈민정음은 한자를 읽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 우리말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든 것입니다. 원인은 좀 달랐지만 둘 다 한자를 모르는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삼강행실도에는 그림을 더했지만 여전히 글자를 모르는 백성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한자를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걱정과 당부도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한자를 아는 사람에게 잘 가르쳐 주도록 당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는 한자를 몰라서 생기는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세종은 한글을 창제하고 삼강행실도를 한글로 번역하고자 합니다.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인간의 도리를 중요하게 생각한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후 떠오른 생각이겠죠. 삼강행실도와 훈민정음은 이렇게 닮아있습니다. 저는 삼강행실도의 정신과 훈민정음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모두 백성 사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훈민정음 창제에 대하여 반대 상소를 올린 사람들을 기억할 겁니다. 집현전 부제학이었던 최만리를 비롯해 여럿이 있습니다. 세종은 상소를 올린 '부제학(副提學) 최만리(崔萬理), 직제학(直提學) 신석조(辛碩祖), 직전(直殿) 김문(金文), 응교(應敎) 정창손(鄭昌孫), 부교리(副校理) 하위지(河緯之), 부수찬(副修撰) 송처검(宋處儉), 저작랑(著作郎) 조근(趙瑾)을 의금부에 내렸다가 이튿날 석방하라는 명합니다. 다만 이 중에서 한 명은 파직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정창손입니다.

정창손을 파직한 이유가 바로 삼강행실도 관련 내용 때문입니다. 세종이 밝힌 파직의 이유를 조금 어렵지만 <세종실록>의 내용을 그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창손(鄭昌孫)은 말하기를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반포한 후에 충신·효자·열녀의 무리가 나옴을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자질(資質) 여하(如何)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꼭 언문으로 번역한 후에야 사람이 모두 본받을 것입니까?' 하였으니, 이따위 말이 어찌 선비의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庸俗(庸俗)한 선비이다."라는 질책을 세종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임금이 정창손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자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효자·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창손의 말에 질책을 한 것입니다.

저는 최만리 등의 훈민정음 반대 상소나 정창손의 삼강행실도 언문 번역 반대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반대도 소중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그래도 한글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보인 겁니다. 모두가 한글 때문에 삼강오륜을 지키는 것은 아니어도 한글 덕분에 서로가 삼강오륜을 지키려는 마음이 깊어질 수는 있었을 겁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Сахалинские учителя поучаствовали в полевом семинаре по краеведческим практикам

7-9 октября экологический центр "Родник" совместно с институтом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ел полевой семинар по краеведческим практикам для учителей и педагогов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еминар состоялся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Загляни в лесную школу", поддержанного Фондом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и курсов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экспедиции как способ формирования умений и навыков использования географи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и".

16 педагог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9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в том числе с Итурупа, занимались изучением методик полевых уроков в палаточных условиях лесного экоцентра "Родник" около лагуны Буссе.

Программа каждого дня состояла из комплекса занятий по краеведению и туризму, которые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 работе со школьниками, чтобы подкреплять теорию учебников практикой.

Полевое занятие — это не тольк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но и прекрас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поэтому педагог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узнали, в какие игры можно поиграть с учениками около костра или на маршруте, а также проявили свои таланты и устроили концерт с гитарой и песней.

Параллельно учителя обменивались опытом и разрабатывали идеи занятий и программ,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или в завершающий день. Так появились уроки по фотогербарию и аэрофотосъемке, проекты "Краеведческая площадка" и "Топосъемка местности". Все полевые практикумы семинара и лучшие разработки войдут в итоговый сборник по проекту,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Родника".

매트 크로울리, 사할린 골프 연맹 컵 따내

골퍼들이 미출류브가 마을 인근에서 열린 사할린 골프 연맹회의 대회로 시즌을 마감했다. 이 대회에는 대한민국과 미국 대표들을 포함해 16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토너먼트는 약 5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경기는 타수 계산으로 치러졌는데, 타수가 적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었다. 참가 선수들은 총 10킬로미터, 각각 150미터에서 600미터까지의 18홀을 진행했다.

선수들은 시즌 마지막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했다. "겨울이 지난 후 모든 사람의 성적이 보통 수준이었던 데 반해 시즌 말에는 10명이 상을 두고 경쟁할 수 있었고 점수는 거의 같았다"고 사할린 골프 연맹 회장 니콜라이 아니케엔코가 말했다.

결승전에서 최고로 가까웠던 샷은 보리스 아니케엔코가 보여주었다. 니콜라이 아니케엔코는 장거리샷에서 우승했고, 대회 3위도 차지했다. 2위는 주기호 대한민국 대표가 차지했다. 연맹 컵은 미국의 매트 크로울리가 수여받았다.

사할린골프연맹은 내년엔 최소 6개 이상의 지역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러시아 컵 대회 출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사할린 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Кубок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ольфа завоевал Мэтт Кроули

Гольфисты закрыли сезон чемпионатом за кубок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торый прошел недалеко от села Мицулевка. В состяз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6 спортсменов, в том числ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жной Кореи и США. Турнир продлился около пяти часов.

Игра велась на счет ударов — кто сделал меньше, тот и победил. Всего гольфистам было необходимо пройти около 10 километров, а это 18 лунок, каждая из которых имеет дистанцию от 150 до 600 метров.

— К завершению игроки отлично подготовлены. Если после зимы результаты у всех были скромными, то в конце сезона за призовые места смогли побороться 10 человек, и счет был практически равный, — отметил президент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я гольфа на Сахалине Николай Аникеенко.

Лучший ближний удар на чемпионате показал Борис Аникеенко. Победителем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дальний удар" стал Николай Аникеенко, он же занял и третье место на чемпионате. Второй результат по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Южной Кореи Джу Ги Хо. Кубок федерации получил американец Мэтт Кроул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азвития гольфа планирует провести не менее шести соревнований на местном уровне, а также организовать выезд команды на чемпионат и кубок Росси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Реклама





КИНО



ТЕАТР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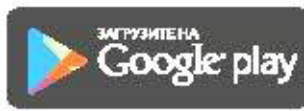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x.com




КОНЦЕРТЫ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з. (주필) 배 워토리아					